

# 인도네시아 바탐 강재모/김지연 선교사의 2020년 2월 선교 편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위협을 당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곳 인도네시아와 바탐은 아직 확진 환자가 없다고 공식 발표 되고 있지만, 아마도 의료 기술이 낙후된 영향으로 제대로 된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 곳 바탐 선교지 방문 계획을 하던 단기 선교팀도 두 팀이나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큰 변화 없이 매일 매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에벤 에셀 학교 학생 10여명을 선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일산 스피릿 교회 초청)

- 2월 현재 전체 준비 인원은 17명 (학생 12명, 선교사 및 인솔 교사 5명)입니다. / 아직 여권이 없는 학생들이 있어서 2월 말까지 여권 완료 후 3월 안으로 한국 방문 비자가 나오면 항공권 발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준비 과정에서도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돕는 손길을 통하여 모두 채워 지도록 ( 현지에서의 준비 교육 기간 간식비, 단체 옷, 싱가포르까지 이동 교통비(페리/차량), 비자비용(1인당 약 한화 10만원) )

2. 에벤 에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가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연결하여 공부를 계속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 지금 현재 8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적으로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학교의 학비는 매월 초등생의 경우 약 2만원, 중등생은 약2만 5천원, 고등생은 약3만 5천원 정도입니다.)

3.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새 건물 2층 교실 공사 (소강당, 교실, 사무실 등) 건축이 6월 말까지 잘 진행되어 7월 새로운 신입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 페이스 북을 통하여 나누었던 사역들을 사진과 함께 나눕니다.**

제주 태권도 선교팀의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사역입니다.

1. 어제는 열번 이상의 시범 사역으로 몸이 아픈 단원들이 많아서 저희 선교재단의 무료 의료 사역 지원 시범은 취소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감사하게도 오늘은 모든 단원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시범을 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3. 태권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교회에서는 매우 생소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 다양한 재능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의 삶을 도전 하였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Hatorangan Tamba

1월 19일 오후 12:43 · 🌐

Pelayanan TIA di gereja GPPS bengkong berjalan dengan baik. Thanks to tim Jeju Taekwondo Mission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선교...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선교지 방문이 취소된 스피릿교회의 선교팀이 영상으로나마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해서 처음으로 시도한 실시간 영상 만남...
2. 에벤에셀 선생님, 마짓 목사님 교회 성도, 핸드로 목사님 교회 성도, 클리닉 의료진 등 함께 모여 약 한 시간에 걸쳐서 찬양, 기도, 축복의 시간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3. 과연 학교의 기자재 수준과 인터넷 속도가 원하는 만큼 따라 줄까 걱정이 되었지만 기대의 80퍼센트 정도의 소통이 가능해서 기뻐했습니다.
4. 15년 전 처음 선교지에 나올 때는 생각도 못 했던 문명의 발전으로 선교지와 한국 교회 성도가 얼굴을 대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5. 이번에 방문을 못 하였지만 오는 5월에 에벤에셀 학교의 청소년 10명과 교사 2명을 초청해 주신 일산 스피릿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1. 에벤에셀 학교 선생님들과 매주 금요일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데 오늘은 건축 중인 2층 교실 위치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인도네시아는 적도가 가까운 지역이라서 태양이 무척 뜨거워 빨리 마치려고 했지만... 찬양, 말씀, 기도 형식이라서 결국 약 3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3. 약 5년 전 중고등학교 건축을 시작하면서 땅 바닥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하여 2층, 3층으로 모든 건축이 끝났습니다.
4. 하지만 다시금 교실이 부족하여, 오래된 유치원 이전과 식당, 게스트 하우스 공사를 마치고 1년이 지나서 다시금 2층 교실 5개 크기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연말까지 2층 완공이 목표이며, 이후 고등학교 교실 일부가 이전하면 아직 교실 부족으로 인해 오후에 등교하는 초등 2학년 3개반이 비로서 아침반으로 등교하게 됩니다.
6. 아래 동영상상을 보시면 수많은 한국 교회와 이름 없이 헌신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세워진 에벤에셀 학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7.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재모

2월 7일 오후 9:44 · 🌐

2020년도 첫 임팩트 청소년 정기 집회

1. 매월 첫 주 금요일 오후 4시 에벤에셀 강당에서 열리는 청소년 집회는 청소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악기를 반주하고, 위임을 합니다.
2. 사실 오후 4시는 예배 드리기에겐 여전히 무렵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작년 8월 이후 부터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초등학생 부터 고등학생까지 스스로 예배에 자리에 나아오는 모습이 너무나 예쁩니다. 앞으로 믿음 안에서 인도네시아의 지도자로 자라나기를 기대합니다.
4.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복음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지도 자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된 자를 통하여, 사모하는 자를 통하여 기쁜 소원을 주셨기에 이루어 주실것을...

오늘 역사적인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 에벤에셀 학생들 10명과 교사 2명이 일산의 스피릿 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울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5월 중순 방문 예정으로 여권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 인도네시아 목회자, 의사, 교사, 태권도 사범 등을 인솔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지만 학생들은 처음입니다.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참가하는 아이들이 체력적으로 언어적으로 잘 준비되도록
  2. 추가적인 필요 재정이 차고 넘쳐도록
  3. 초청하는 교회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준비 될수 있도록
  4. 한국 방문을 통하여 아이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잘 준비되는 배움의 시간이 되도록



1. 어제는 올해 새롭게 장학금을 받게된 에벤에셀학교 학생들(62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 하였습니다.
2. 학부모님을 함께 초청하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후원을 하시는 분을 소개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힘든 인도네시아 땅에서 홀로 기업을 이끌어 가면서 받은 복을 흘러 보내시는 권사님과 이십대의 젊은 나이에 결단하고 후원하는 청년자매의 헌신으로 가능하였습니다.
4.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 연락처 > 현지 전화 번호 001(국제전화)-62-813-8654-7012 / 070-8235-1152 <070 국내 통화 요금>

카카오 아이디 : kangaemo1004 강재모 선교사 kangaemo@hanmail.net / 김지연 선교사 [wec1004@hanmail.net](mailto:wec1004@hanmail.net)

< 후원계좌 예금주 강재모 / 시티은행 8910153025501 우리은행 1002-730-785647 >